

모의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열)

□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십시오.

(가)

산티아고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다. 그는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여느 때보다 일찍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는 이틀에 걸쳐 햇볕, 갈증, 배고픔과 싸우며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상어 떼의 습격을 받아 애써 잡은 물고기를 모두 잃고, 머리와 앙상한 뼈만 매달은 채 항구로 돌아왔다.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나)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신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걸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걸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걸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강게 익은 명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나태주, ‘사는 일’ 중에서

(다)

지난 33년간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 라는 날이 너무 많이 이어지면 무언가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외부의 기대, 자존감, 당혹,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

【문제 1-1】

(가) (나) (다)에 묘사된 삶의 공통점을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서술하십시오. (200자 내외)

【문제 1-2】

(가)의 경우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고(100자 내외), (나)의 경우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지지하십시오.(200자 내외)